

The Presence of YHWH Must Become Visible in the Way We Live

야훼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Yochanan 14:9–20** — Yehoshua teaches that knowing him means recognizing the Father whose works are being revealed through him. He promises that those who love him will keep his commandments, and that the Spirit of Truth will dwell with them and be in them.

**Devarim 16:18–21:9** — Torah describes what the presence and authority of YHWH should produce within Israel: righteous judges, rejection of idolatry, respect for proper authority, protection of innocent blood, disciplined warfare, and communal responsibility for unresolved bloodshed.

**Yishayahu 51:12–52:12** — YHWH comforts Zion, calls His people to awaken, and announces redemption. Israel must leave impurity behind because YHWH Himself goes before them and guards their rear.

**요한복음 14:9–20** — 예호수아는 자신을 아는 것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진리의 영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 안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한다.

**신명기 16:18–21:9** — 토라는 야훼의 임재와 권위가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의로운 재판, 우상숭배의 거절, 올바른 권위에 대한 존중, 무죄한 피의 보호, 전쟁에서의 절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피 흘림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이다.

**이사야 51:12–52:12** — 야훼께서는 시온을 위로하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깨어나라고 부르시고 구원을 선포하신다. 이스라엘은 부정함을 떠나야 한다. 야훼께서 친히 그들 앞에 가시며 뒤에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Mussar

**1. Divine Presence must become visible through human conduct.** Yochanan 14 repeatedly joins the Father’s presence with visible “works.” Devarim gives this principle communal form: if YHWH dwells among Israel, justice, holiness, mercy, and truth should become visible among His people. Spirituality that cannot be seen in conduct remains incomplete.

**1. 엘로힘의 임재는 인간의 행동을 통해 보여야 한다.** 요한복음 14 장은 아버지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일”과 계속 연결한다. 신명기는 이 원리를 공동체의 삶으로 확장한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면 정의와 거룩함과 긍휼과 진리가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영성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 2. Love and obedience cannot be separated.

Yehoshua says, “If you love Me, you shall guard My commands” (Yochanan 14:15). This echoes the Torah's understanding of covenant faithfulness. Love for YHWH is not merely emotion; it produces obedience. Devarim 16–21 shows what such obedience looks like when applied to courts, leaders, worship, warfare, family, and community.

3. “Justice, justice you shall pursue.” Devarim 16:20 does not merely command Israel to admire justice but to **pursue** it. The repetition *tzedek, tzedek* ( צֶדֶק צֶדֶק ) intensifies the demand. Mussar asks not simply, “Am I technically right?” but, “Am I actively pursuing what is righteous before YHWH?”

4. Fear of people grows when we forget who YHWH is. Yishayahu asks, “Who are you that you should be afraid of man who dies?” (Isa. 51:12). Fear becomes spiritually dangerous when human opinion becomes greater in our minds than the One who made heaven and earth. Yochanan 14 answers this fear with the promise that the disciples will not be abandoned: “I shall not leave you orphans.”

5. The Spirit of Truth does not free us from truth; He leads us deeper into it. Yochanan 14:17 calls Him the Spirit of Truth. Therefore, genuine spiritual experience should produce greater truthfulness, integrity, discernment, and obedience—not less.

## 2. 사랑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 예호수아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리라”(요 14:15)고 말씀한다. 이것은 언약적 신실함에 대한 토라의 이해와 연결된다. 야훼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종을 낳는다. 신명기 16–21 장은 그 순종이 재판, 지도자, 예배, 전쟁,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준다.

## 3. “공의, 공의를 따르라.” 신명기 16:20 은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존중하라고만 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명령한다. *체데크, 체데크* ( צֶדֶק צֶדֶק )라는 반복은 그 요구를 더욱 강조한다. 무사르는 단순히 “내가 법적으로 옳은가?”라고 묻지 않고 “나는 야훼 앞에서 의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 4. 우리가 야훼가 누구신지를 잊을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이사야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네가 누구냐?”(사 51:12)라고 묻는다. 사람의 평가가 천지를 지으신 분보다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리 잡을 때 두려움은 영적인 위험이 된다. 요한복음 14 장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으로 이 두려움에 대답한다.

## 5.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으로 더 깊이 이끄신다. 요한복음 14:17 은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Devarim likewise insists that testimony must be carefully examined and falsehood exposed.

#### 6. Remove evil first from within your own gates.

Devarim repeatedly commands Israel to “purge the evil from your midst.” Mussar turns this inward. Before condemning darkness outside ourselves, we examine the gates of our own heart: resentment, pride, dishonesty, uncontrolled desire, jealousy, and fear.

**7. Do not become hardened toward human suffering.** Devarim's laws concerning accidental killing, warfare, captives, and unidentified murder all teach that human life cannot be treated casually. Even when guilt is uncertain, spilled blood demands attention. Holiness makes us more sensitive to suffering, not less.

**8. “Awake, awake!” — redemption requires awakening.** Yishayahu repeatedly calls Zion to awaken: **“Awake, awake, put on your strength”** and **“Shake yourself from the dust.”** YHWH provides redemption, but His people must rise from spiritual passivity. Mussar therefore asks: *Where have I become spiritually asleep?*

**9. Redemption should change what we carry.** Yishayahu 52:11 commands, **“Depart! Depart! Go out from there! Touch no unclean thing.”** Leaving bondage geographically is not enough; Babylon must

참된 영적 경험은 진실함과 정직함과 분별력과 순종을 더욱 깊게 만들어야 한다. 신명기 역시 증언을 철저히 조사하고 거짓을 드러내라고 요구한다.

#### 6. 먼저 자신의 성문 안에서 악을 제거하라.

신명기는 반복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무사르는 이것을 내면으로 돌린다. 밖의 어둠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성문을 살피야 한다. 원망, 교만, 거짓, 절제되지 않은 욕망, 질투와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지를 살피야 한다.

**7.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해지지 말라.** 신명기에서 우발적 살인, 전쟁, 포로,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관한 규례들은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다룰 수 없음을 가르친다. 죄책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조차 흘려진 피는 공동체의 관심을 요구한다. 거룩함은 고통에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

**8. “깨어라, 깨어라!” — 구원은 깨어남을 요구한다.** 이사야는 시온에게 반복하여 **“깨어라, 깨어라, 네 힘을 입으라”**, 그리고 **\*\*\*“티끌을 털어 버리라”\*\*\***고 외친다. 구원은 야훼께서 베푸시지만 그분의 백성은 영적인 수동성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무사르는 묻는다. *나는 어디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가?*

**9. 구원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 이사야 52:11 은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also leave the heart. Old habits, fears, compromises, and identities cannot continually be carried into the redeemed life.

**10. You do not walk alone.** Yishayahu concludes, “YHWH is going before you, and the Elohim of Yisra’el is your rear guard” (Isa. 52:12). Yochanan 14 gives the same spiritual assurance: “**I shall not leave you orphans.**” Covenant obedience therefore does not arise from abandonment but from Presence. YHWH goes before His people, dwells among them, and strengthens them to walk faithfully.

### The Connecting Thread — “I Am in You”

The deepest connection among these readings is **divine Presence producing transformed conduct.**

**Devarim:** YHWH dwells among Israel; therefore Israel must become a community of justice and holiness.

**Yishayahu:** YHWH returns to Zion; therefore Zion must awaken, rise from the dust, put on beautiful garments, and leave impurity behind.

**Yochanan:** The Father is revealed through Yehoshua, and the Spirit of Truth will dwell within the disciples; therefore love must become obedience: “**If you love Me, you shall guard My commands.**”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한다. 장소적으로 바벨론을 떠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음속의 바벨론도 떠나야 한다. 과거의 습관과 두려움과 타협과 옛 정체성을 계속 구원받은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

**10. 우리는 홀로 걷지 않는다.** 이사야는 “야훼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Elohim 께서 너희 뒤를 지키시리라”(사 52:12)는 말씀으로 마무리한다. 요한복음 14 장도 동일한 영적 확신을 준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언약의 순종은 버려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재**에서 나온다. 야훼께서 앞서 가시고,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신실하게 걸을 힘을 주신다.

이 세 본문을 연결하는 가장 깊은 주제는 **엘로힘의 임재가 변화된 삶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신명기:** 야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므로 이스라엘은 정의와 거룩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사야:** 야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므로 시온은 깨어나 티끌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정함을 떠나야 한다.

**요한복음:** 아버지는 예호수아를 통해 나타나시며 진리의 영은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리라.**”

The progression is powerful: **YHWH among us → YHWH before us → YHWH within us.** Yet each stage produces the same question: *Does His Presence change the way we live?*

### Core Mussar — Presence Must Become Practice

Do not measure closeness to YHWH merely by what you **feel**. Measure it also by what His Presence is producing within you.

If He is teaching us truth, become truthful. If He commands justice, pursue justice. If He gives mercy, become merciful. If He calls us out of bondage, leave the old ways behind. If we love Him, guard His commandments.

**The strongest evidence of divine Presence is a life increasingly shaped by the character and will of YHWH.**

이 흐름은 매우 강력하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야훼 → 우리 앞서 가시는 야훼 →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야훼.**  
그러나 모든 단계에서 동일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야훼와의 가까움을 단순히 무엇을 **느끼는**가로 측정하지 말라.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로도 측정하라.

그분이 진리를 가르치신다면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분이 공의를 명하신다면 공의를 추구하라. 그분이 공흠을 베푸신다면 공흠한 사람이 되라. 그분이 속박에서 나오라고 부르신다면 옛길을 버리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엘로힘의 임재를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야훼의 성품과 뜻을 점점 더 닮아 가는 삶이다.**